

祝辭

## 時代的 要請에 副應하라

오늘 本人은 “科學과 技術”誌의 100號 發刊을 慶賀해 마지않으며 그 동안의 關係當勞者 여러분의 勞苦에 대해 진심으로 敬意의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歷史的으로 커다란 轉換期에 處해 있습니다. 즉 韓國經濟는 3次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을 通하여 수 많은 對内外의 試練과 難關을 克服하고, 輸出을 主軸으로한 對外指向의인 經濟開發을 成功的으로 遂行함과 同時에 民族의 中興을 굳건히 다지기 위한 第4次 5個年計劃을 힘차게 推進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60年代 以後의 高度成長은 産業의 量的 外形의 膨脹을 가져왔지만 이제 現時點에서 신중히 考慮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繼續해서 韓國經濟가 지금과 같은 高度成長을 아무 어려움 없이 持續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바로 그 것입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現今의 世界經濟는 石油波動을 위시하여 國際通貨의 不安定, 資源 Nationalism의 擡頭등으로 新自國保護主義의인 傾向이 表面化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對韓輸入規制 強化와 함께 우리보다도 한발 뒤늦은 後發開發國의 挑戰도 看過할 수만은 없는 형편입니다.

특히 輸出增大를 通한 지금까지의 成長이 비록 括目할 만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內容에 있어 低賃金에 基礎를 둔 單純勞動集約的인 商品의 生産과 이의 輸出에 크게 依存하였음을 否認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韓國經濟上 過去와 같은 高度經濟成長을 持續하고 날로 急變하는 對外條件에 긴밀히 對處하여 高度産業社會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科學技術의 振興을 通한 産業構造의 高度化와 經濟體質強化로 國際競爭力 提高에 注力해야만 할 것입니다.

政府도 이러한 點을 감안하여 80年代를 向한 重化學工業의 育成은 勿論 企業經營에 있어 核心 課題라 할 수 있는 技術革新 내지 技術開發能力을 培養키 위해 高度의 專門的인 知識을 要하는 專門戰略研究所를 設立하였으며, 이는 現實情에 알맞는 지극히 當面한 結果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한편 産業技術開發 내지 技術自立과 關聯된 重要課題로서 産業의 國際化時代에 對處하고 技術革新을 可能케 하기 위해서는 技術開發을 위한 諸般施設의 擴充과 科學技術風土의 造成이 重大하고 時急한 課題로 浮上하고 있습니다. 즉 頭腦産業育成을 위하여서는 研究開發費의 과감한 投資와 함께 國內技術開發力量을 涵養키 위한 技術開發誘導造成策을 強化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各專門戰略研究所가 産業技術의 中軸的인 役割과 機能을 다하고 企業이 技術中心의 經營戰略을 俱現키 위해서는 專門研究所와 産業界의 紐帶強化 및 그 活動增大, 企業의 自體技術開發體制確立등이 크게 要請되고 있습니다. 또한 外國技術導入에 있어서도 世界尖端技術의 選別的인 導入으로 轉換되어야 할 것이며, 導入技術의 消化改良促進으로 導入技術의 土着化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本誌가 이러한 時代的 要請에 副應하여 技術革新의 時代를 이룩하고 科學技術開發을 促進하는데 名實相符한 旗手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다시 한번 本紙의 100號 記念發刊을 祝賀하는 바입니다.



全國經濟人聯合會 會長 鄭 周 永